

서울시 치과의사회

'95 서울시 치과의사회 종합학술대회 및 치아의 날 행사 개최

지난 6월 9-10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95 서울시 치과의사회 종합학술대회 및 치아의 날 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3천 8백여 명이 등록한 가운데 63빌딩에서 개최되어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이날 학술대회는 구강보건주간과 서울특별시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어느 해보다도 성대하게 개최되었으며 특히 특별심미 대강연 및 특별연제 발표, 19개 라운드테이블 디스커션, 해외 연수자 발표 등 다양한 내용의 학술강연을 선보인 이번 대회는 시종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대회 첫날인 9일 오전 9시에 시작한 학술대회에서는 국제대회의장에서 로올라치대 로버트 알란 도워 교수와 스스웨스턴치대 스티븐 A. 휘시먼 교수가 『Restorative Dentistry for the 90.s A Revolution in Practice Potential and Procedures』란 연제로 심미특별 대강연을 가졌으며 3층 글로리아룸에서는 고석훈 원장의 『Esthetic and



'95 서울시 치과의사회 종합학술대회 장면



특별연제 발표

functional partial dentures』를 비롯한 8편의 특별연제가 개최, 많은 회원들이 성황을 이루었다.

또 이날 오후 6시에 국제대회의장에서 거행된 본 행사에서는 수상자 및 가족, 대회 관계자, 내빈 등, 4백 50여 명이 참가하여 이미 선발된 건치가, 건

치아동, 건치연예인 및 스포츠맨, 모범 및 유공양호교사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모두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동경치과의사회 쓰트마기 다찌오 회장과 말레이시아 치과의사회 A. 라트난 산 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히 3부 여흥시간에서는 금년도 건치 연예인으로 선정된 이영현(MC), 이영자(코메디언), 고소영(텔런트), 신승훈(가수) 씨 등의 인터뷰 및 장기자랑이 있었으며, 건치아동들의 노래와 동요메들리, 민속공연 등, 흥겨운 시간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기자재 전시 장면

또 이날 본 행사에서는 건치 아동 48명, 건치가족, 모범양호 교사 8명, 유공양호교사 15명 구강보건 유공자 등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다음날인 10일에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정진구, 이종엽 원장의 『Clinical Principles in Deental Ceramics』 심미특별연제가 오전 9시부터 국제대회 의장에서 열렸으며, 갤럭시룸과 글로리아룸에서는 단국대학교 조인호 교수의 『Implant 보철의 교합 및 생역학』를 비롯한 5연제의 특별연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또 이번 대회에서 처음 실시된 임상실습연제에서는 참석자들의 사전 신청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되긴 했지만 학술대회 사상 최초의 임상실습으로 높은 관심과 함께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으며, 기자재 전시도

성대히 펼쳐졌다.

한국치정회 제2기 임원 출범식

한국치정회는 지난 6월 3일 남산에 소재하고 있는 힐튼호텔 지리산 룸에서 「제2기 임원 출범식」을 갖고 정치력 발휘에 최선을 다해 치과계 숙원사업과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였다.

홍손용 기획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서 이종수 회장은 「치정회가 창립된 이후 지난 6년 동안 김동순 전 임 집행부가 4억원이 넘는 운영기금을 확보하는 등 착실한 기반을 다진 만큼 이제 제 2의 도약을 위해 창립 본래의 목표와 방향에 충실하겠다고 밝히고 전국 치과인의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면 새로운 위상 정립은 물론 치과인을 위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균 치협회장은 「협회가 하기 힘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말하였으며, 이호정 국회의원은 치과의사의 명예와 치정회의 적극적 지원을 잠시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동



치정회 제2기 임원출범식

순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다.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

지난 5월 26, 27일 양일에 걸쳐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김광남)는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보철 임상 실패의 원인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6백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루어졌다.

독일 튜빙겐대학의 베버 교수 특강을 중심으로 펼친 이번 학술대회는 2개의 주제 심포지움과 22연제의 임상증례 발표, 21연제의 임상포스터 발표 등이 있었다.

심포지움에서는 최부병(경희치대) 교수의 『크라운 브릿지에서의 임상 실패와 그 대책』을 비롯, 이호용(연세대), 최대균(경희대), 김영수(서울대) 교수 등이 소주제를 발표했다.

한편 27일 내내 강연한 베버 교수는 『최신 고정성·가철성 임프란트 보철물 치료 기술』이란 주제로 Spark Erosion 테크닉을 이용한 Hybridtype와 Telescopic Partial Denture의 제작 등에 관한 각종 방법을 설명하였다.

공직지부 임시대의원 총회

지난 5월 26일 공직지부(회장 김수경)는 서울치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전문치의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4월 치협총회에서 대안 없이 부결된 전문치의제 문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치협에 조속히 임시총회를 개최 수련교육의 제도화를 실현시킬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직지부의 의안으로 상정했던 10개 과목 전문수련교육제도와 자격 인정에 관한 안건을 다시 상정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직지부는 인정 의제도와 관련 이는 각 분과학회의 소관이므로 전문의제도 유보 상황에서 수련교육의 표준화를 위해서라도 자연발생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본다며, 지부 견해가 모아졌다.

공직지부는 이를 위하여 현재 제도적 관리가 미비한 상황

에서 각 분과학회간의 공동보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분과학의체(가칭 치의학처)의 창립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치캠 정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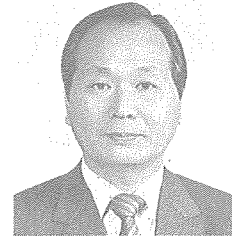
컴퓨터 동호인회는 지난 5월 25일 오후 7시 치협회관 3층 강당에서 제 8차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해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덴탈 프로그램 개발 및 학술집담회 개최등의 사업계획과 이에따른 8천 2백 74만원 규모의 9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회칙을 개정하여 회의명칭을 대한치과정보통신학회로 개정하여 치협분과학회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총회 개최식에서 박래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호인회 활동으로는 정보화시대를 쫓아가기 어려워 학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치과계 정보의 치협과의 공조하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치대 썸튼사랑회의 구강병리학 CD롬 타이틀화 시연이 있었다.

이날 개최식에서는 김정균 협회장과 이기택 부회장, 변영남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日, 국제 신경과학회 金明國교수 강연



김명국 교수

오는 7월 9일~14일간 日本 교토에서 제4차 국제 신경과학회 학술회가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齒大 교수로는 유일하게 金明國 서울치대 교수(구강해부학 교실)가 강연한다. 金明國 서울치대 교수는 6월초 뉴욕 주립대 초청으로 서니재단 기금을 받고 1개월간 단기연구에 들어간 후 일본 국제대회를 거쳐 동경도 소시마市에 있는 일본전자(주) 전자현미경 제작소를 방문, 특화 및 주사 전자현미경 제작과정을 견학하고 11월말경 귀국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직 교수 발령

서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김광남)은 최근 치학연구소장에 김종배(예방치과학 교실)교수를 임명하는등 보직 교수를 임명 발령하였다.